

우수한 공대생의 교육 활동 참여 분석: 개인투자이론을 기초로

홍성연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An Analysis on Educational Experience of Competent Engineering Students based on Personal Investment Theory

Hong, Seongyoun
Dasan University College, Ajo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competent engineering students and finding the reason why they invest their time and efforts engaging in school activities. Five students with high GPA, high K-CESA scores and successful employment or entrance test scor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interview. In checking their responses, their activities' records were gathered from school DB. According to the modified framework based on the personal investment theory, the interviews, survey and DB records were analyzed on the sense of self, the social cultural environment, and pattern of behaviors in schools. The competent engineering students are able to manage themselves, in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collegiate, and in having high self-efficiency. They also tend to put effort into their studies and participate in inbound and outbound school activities. At the last part, freshmen foundation, relationship within college, students' activity related future career, economic stability during studies are suggested for supporting students in universities.

Keywords: Engineer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 Personal Investment Theory, Student Support

1. 서 론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힘쓰기보다, 선발된 학생이 우수한 역량을 갖도록 교육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역량 진단이 대학의 교육적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겨지면서, 대학은 학생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범위는 단순히 '수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의 역량은 수업을 비롯하여 재학 중에 참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향상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와 비교과, 정규와 비정규의 모든 교육과 서비스가 대학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대학의 교육성고가 학생의 교육 참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Astin, 1999; Pace, 1987).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은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학습과정 진단도구(NASEL: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를 개발하고, 역량과 학습과정 참여가 일정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왔다(최정운 외, 2016). 미국의 NSSE(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나 호주의 CEQ(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 등도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와 교육성고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히거나 요인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개별 학생의 입장에서 그 활동에 왜 참여하였으며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실제 학생이 느끼는 교육성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교육성고가 우수한 공대생들이 어떤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이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한 일이나 활동에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투자이론(Personal Investment Theory)이 있다. 이 논문은 이 이론을 준거로 하여 무엇이 학생들로 하여금

Received July 3, 2017; Revised July 18, 2017

Accepted July 31, 2017

† Corresponding Author: hsy06@ajou.ac.kr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공대생으로 성장하게 하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성과가 우수한 다섯 명의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인터뷰, 대학의 데이터베이스의 교육활동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이를 대학의 지원과 연계해서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분석의 개념 틀

대학에서 교육경험이 학생의 만족과 성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다. Astin(1993)의 관여이론(Involvement Theory)이나 Pace(1987)의 노력의 질 이론(Quality of Effort Theory)이 대표적인데, 이 이론들은 대학생이 교실 수업, 교내외 프로그램과 활동,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수록 얻게 되는 성과도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NASEL, NSSE, CEQ 등 대학생의 교육경험의 종류와 특성을 확인하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설문을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Webber, Krylow & Zhang, 2013).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개인적 동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개인이 특정한 일에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투자이론(Personal Investment Theory)이 있다(Maehr & Braskamp, 1986). 인간은 자아감(Sense of Self), 선택권 인식(Perceived Options), 개인적 인센티브(Personal Incentives)에 따라 특정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된다. Braskamp과 동료들은 이를 대학의 맥락에 맞게 발전시켜 대학생의 자아감(Sense of Self), 이를 지원하는 대학의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Environment)에 따라 대학생의 활동에 대한 행동패턴(Patterns of Behavior)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raskamp, Trautvetter & Ward, 2006; Braskamp, 2009). 자아감, 사회문화적 환경, 행동패턴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감(Sense of Self)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 즉 자기정체성과 관련된다. 개인이 스스로를 대학생으로 인식하고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대학에서의 교육적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이다. 자아감은 개인적 목표, 목적의식, 능력과 강점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인적 목표는 어떤 활동을 선택할 때 어떤 요소에 더 끌리는지, 즉 동기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와 관련된다. 이는 Maehr와 Braskamp(1986)가 초기 모형에서 언급한 개인적 인센티브의 개념이 발전한 것으로 개인이 동기화되는 요소나 개인적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Braskamp(2009)은 개인에 따라 동기화되는 요소가 다르며 이러한 성향을 도전적-수용적, 주도적-협력적,

집단적-독립적, 외적보상-내적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목적의식은 삶의 지향점이나 미래 기대에 비추어 해당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관련된다. 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당 활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강점은 스스로 해당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신념과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Environment)은 대학생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문화, 교과 교육과정, 범교과 교육과정, 공동체 등으로 구성된다. 본래 이러한 환경은 학생 입장에서 일종의 선택권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먼저, 문화는 대학 구성원이 공유한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대학 구성원의 관계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교과 교육과정과 범교과 교육과정은 수업이나 수업 이외의 형태로 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대학에서는 교양이나 전공 수업과 같은 교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업이나 학점부여와 상관없이 학생의 윤리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전체 학생에게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프로그램, 특강 등 범교과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학생클럽, 동아리, 전공 등 학생, 교수, 직원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모두 아우른다.

행동패턴(Patterns of Behavior)은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참여 활동, 인지적 관여,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을 말한다. 자아감에 따라 학생들은 스스로 동기를 느끼거나 미래나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거나 스스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학은 학생들이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나 공동체 활동이 자신의 자아감에 비추어 참여할 만한 것인지 검토하고 성찰한 후 결정한다. 학생의 참여와 관여가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패턴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학교육에 적용된 개인투자이론은 개인의 자아 인식, 대학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학생의 지속적인 행동패턴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학을 염두하고 각 요소를 구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인투자이론의 기본 개념이 왜곡되지 않으면서 우리 대학에서 유의미하며 수집 가능한 자료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요소를 Fig.1와 같이 재구조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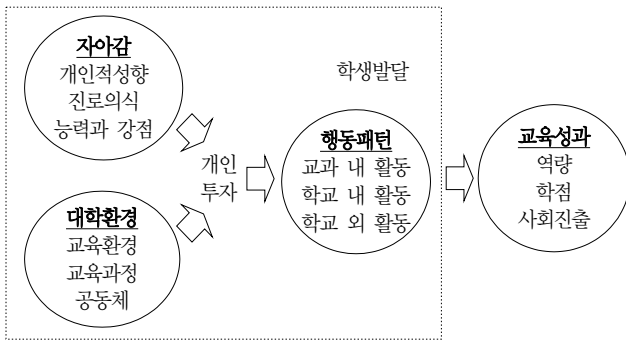


Fig. 1 Framework of Analysis

‘자아감’에서 개인의 동기요소를 설명하는 ‘개인적 목표’는 의미가 명확하도록 ‘개인적 성향’으로 변경하였다. 삶의 목적을 설명하는 ‘목적의식’은 대상이 대학생임을 감안하여 ‘진로의식’으로 변경하였다. ‘능력과 강점’은 그대로 두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더 직접적으로 ‘대학환경’으로 바꾸고 한국대학에서 불분명한 ‘문화’는 대학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교과 교육과정’과 ‘법교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 ‘공동체’는 그대로 두었다. 자아감과 대학환경을 통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간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행동패턴이 형성된다. ‘행동패턴’은 대학 재학 중의 활동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참여’와 ‘관여’를 통한 ‘수행능력 향상’이라는 모호한 요인 대신 수업과 같은 ‘교과 내 활동’,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내 활동’과 대학 밖의 지역사회나 대학 간 연계에 의한 ‘학교 외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대학생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Braskamp 등(2006)이 선행연구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게 ‘교육성과’ 영역을 추가하고, 그 하위요인으로 ‘역량’, ‘학점’, 졸업 후 ‘사회진출’을 선정하였다. 이는 연구의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이 논문은 Fig.1를 기초로 K-CESA의 역량평가점수와 졸업시 평균학점이 우수하며, 취업이나 진학에 성공한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대학에서 어떤 행동패턴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학의 환경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나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유기웅 외, 2014). 이에 따라 역량이

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학생	성별	출생 년도	입학 년도	K-CESA			인터뷰 학년	졸업		
				학년	평균	탁월 영역 수		학년	년도	평점
A	여	1991	2010	3	3.7	5	4	2015	3.9	취업
B	남	1987	2011	3	3.5	4	4	2015	4.0	취업
C	남	1990	2009	3	3.0	2	4	2015	3.7	취업
D	남	1991	2010	2	3.0	4	3	2016	4.0	진학
E	남	1989	2012	2	3.5	3	3	2016	3.7	취업

우수하고, 졸업 평균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며,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 등 사회진출에 성공한 공과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역량이 우수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대학생의 역량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대학생핵심역량진단(이하 K-CESA)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다(진미석 외, 2013). K-CESA는 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자원정보기술역량, 글로벌역량, 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역량 등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점수가 부여된다. 탁월을 4, 우수를 3, 보통을 2, 미흡을 1, 과락²⁾ -1로 계산하였을 때 인터뷰 대상자는 평균점수가 3.0점 이상³⁾인 학생들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 중 졸업 시 평점이 3.5점 이상(4.5만 점)이고, 인터뷰에서 참여자가 진술한 것과 졸업 후 진로가 일치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학생A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의사소통 등 다섯 영역에서 탁월을 받았으며, 인터뷰 당시 이미 두 곳의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

학생B는 다른 학교를 다니다 재입학한 학생으로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사고 등 네 영역에서 탁월을 받았으며, 인터뷰 당시 이미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다.

학생C는 자기관리, 글로벌 등 두 영역에서 탁월을 받았으며, 그 전년도에도 동일한 역량평가에 응시했었는데, 그때 평균점수는 3.2로 약간 높았었다. 역량평가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시험문제가 동일하여 일부 문항에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답을 적었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 학교 데이터베이스 상에 취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학생D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글로벌 등 네 영역에서 탁월을 받았으나 의사소통역량의 경우 과락을 받았다.

2) 의사소통역량과 종합적사고력의 주관식에서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될 경우 과락이 부여됨

3) 해당 대학에서 동일한 학기 K-CESA에 응시한 공학계열 학생들이 총 216명으로 평균 3.0이상인 23명으로 대략 10%에 해당함

그 이유는 역량평가의 마감날짜를 착각하여 해당 영역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인터뷰 당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였으며, 학교의 데이터베이스 상에도 국내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생E는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등 세 영역에서 탁월을 받았으며, 학생B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마치고 입시를 거쳐 재입학한 경우였다.

2.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역량과 교육성과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개인투자이론을 기초로 교육성과와 교육경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K-CESA에 응시한 공학계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 질문지와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응한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K-CESA 응시 후 4~6개월 이후인 201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본인의 역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K-CESA의 하위 역량에 영향을 미친 대학에서의 경험, 대학 입학에서 현재까지 대학에서 수업활동, 교우관계,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향후 진로계획, 평소 학습습관, 역량형성이나 진학에 영향을 미친 고등학교 생활 및 대학 입학시험 준비과정 등이 포함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준비된 인터뷰 내용에 덧붙여 필요시 연구자가 추가 질문을 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설문'(유현숙 외, 2012)을 통해 학생의 배경정보와 교육경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셋째, 인터뷰에 응한 학생 중 연구조건에 맞는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졸업 시 평점이 3.5점 이상이며, 학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2017년 기준 진학이나 건강보험기준 취업자인 학생은 총 5명이었다. 이에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들의 비교과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및 소학회 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뷰 내용과 비교 분석하였다.

넷째, 인터뷰 자료는 질적자료 분석도구인 Nvivo10.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코드는 Fig.1의 개념 틀을 활용하여 자아의식 측면은 개인적 목표, 진로 의식, 능력과 강점의 범주로 코딩하고,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은 교과 내 활동(수업, 전공), 학교 내 활동, 학교 외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의 환경은 교육환경, 교육과정(수업, 특강 등), 공동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자료와 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한 자료 등은 엑셀과 SPSS를 이용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 등 기초통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타당한 분석을 위해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학생 설문자료와 학교 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대조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자아감 측면

선정된 학생들은 역량평가와 평점이 높고, 계획한 대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성공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의 개인적 성향, 진로 의식, 능력과 강점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적 성향: 효과적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

개인적 성향은 개인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고, 어떤 특성을 지향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다섯 학생들의 공통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도적인 동시에 협력적인 성향을 띄고 있었으며 자기생활을 잘 관리하고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K-CESA 평가에서 자기관리역량의 점수가 높은 편으로 5명중 4명이 탁월해 해당하였다. 또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계획적이거나 일을 미루지 않는 편이라고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였다.

미루기보다 모든 일마다 시작과 끝을 정해놔야지 잘 되는 성격인 거 같아요... 엄마, 아빠 둘 다 맞벌이를 하셔서 거의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보면 잘 안되더라고 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를 활용하는) 습관을 억지로 만들었어요.(학생A)

설문에서도 '과제기한을 넘겨서 제출'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언제부터인지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몸에 베인 습관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대체로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보였다. K-CESA 평가에서 대인관계역량 역시 3명이 탁월, 2명이 우수였다. 이들은 신입생 초반 독립된 생활과 낯선 기숙사 환경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내 룸메이트들과 친해져서 동일한 방을 다음 학기에도 함께 사용하는 동반입사를 신청하기도 하거나 타인과 자신의 리더십을 비교하며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도 하였다(학생A). 또한 '군대 선임병하고 지금도 연락할 정도로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하였다(학생D). 이러한 관계는 대인관계에 대한 개인적 자신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학생E).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으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발전시켜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막 다녔던 거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내가 고민이 있거나 스스로 답을 못 낼 때 다른 사람을 만나 얘기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꼭 안 나와도 참고해 볼만한 것도 있고.(학생B)

이와 같이 이들은 대체적으로 계획적이었으면서도 협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나. 진로의식: 활동을 통한 자기 적성의 이해

대학생활이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계획은 입학 당시 막연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주변 환경이나 선배의 권유에 따라 동아리나 학회에 참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활동을 찾아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졸업 후 진로와 연계되기도 하였다.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때 생활 청산하고 동아리도 탈퇴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유도하고 발명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집이 고시텔이라 가기 싫어서 동아리 방에서 살았어요.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유도부 부회장도 하고, 단도 타고, 교내 공학 아이디어나 창업경진대회에도 나가고, 기업체에서 하는 공모전에서 CEO상도 받고.(학생C)

학생C는 발명동아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취업이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인터뷰 당시 학생들은 대체로 진로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 편이었다.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3명,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1명, 미정인 학생이 1명이었는데, 실제 졸업 후 사회진출현황을 학교 데이터베이스에서 살펴보면, 미정이었던 학생을 포함하여 4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로 파악되었으며, 1명이 대학원에 진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3학년 1학기 전까지만 해도 학점도 좋고 공부도 재밌어서 대학원에 가자고 했었는데... 실험실 조교도 해보고 대학원생 연구도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타 학생들에 비해서 대인관계나 이런 쪽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연구 쪽보다 일반 기업에 가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리더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동아리에서 팀장을 했었는데, 일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하는 것 같았거든요.(학생B)

실제 인터뷰 당시 4학년 1학기인 학생 두 명은 이미 취업을 확정지은 상태였다.

취업은 여름에 인턴 두 개에 붙었는데, OO랑 △△인데, 혜택은 OO은 하반기 면접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은 100% 채용을 전제로 해요. 안전하게 △△가고, 2학기 때 또 다른 데도 써 보려고요.(학생A)

이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와 취업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으며, 취업을 위한 집중 교육, 인턴활동, 동아리활동, 대회 등 여러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능력과 강점: 성실한 학습 태도와 높은 자기효능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학습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좋은 학점으로 연결되었다. 설문에 따르면, 수업 전에 '읽기 및 예습'을 하거나(4명, 80%), 숙제를 마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5명, 100%)이 대부분이었다.

공부하러 대학에 온 거니, 학기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보통 오전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점심 먹고 낮잠 좀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과제 같은 거 하고, 저녁 먹고, 애들이랑 좀 놀고 새벽에 다음날 예습이랑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자죠.(학생D)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아리나 소학회의 리더를 맡거나 수업의 팀 활동을 이끄는 등 학업과 교내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이는 적절한 성과로 되돌아오면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학교 데이터베이스에도 학생A, 학생B, 학생C, 학생E의 경우 4학기 이상 교내 동아리나 소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었다. 학생D는 소학회에서 1학기동안 임원생활한 기록이 있었으며, 수업과 관련된 팀 활동 등에서 '시간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끄는 편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교내외 대회에서 성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발표 동아리 회장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회장했을 때 상을 4~5개 받은 것이예요. 공대 공학 프레젠테이션 대회 때 저희 소학회에서 7~8팀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세 팀이 상을 받았어요. 또 1년 계획안에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어떤 걸 목표로 한다는 것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는데 은상을 받고... 상을 좀 많이 받아서 이번에 '동아리왕'이 생겼어요.(학생A)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과 활동은 물론 범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를 잘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잘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보였다.

2. 대학환경 측면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은 수도권에 위치하였으며, 정부의 대학교육 지원 사업에 여러 번 선정되어 비교적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인식한 대학환경을 교육환경, 교육과정, 공동체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 교육환경: 적극적 관계형성과 활동 지원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계기가 되었던 대학의 교육환경은 크게 신입생 적응 지원, 교내의 학생 활동 독려, 그리고 장학금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섯 중 네 명의 학생들은 1학년 때 대학생 생활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원하지 않은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학업에만 몰두하는 등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생 생활에 적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한 명은 군대(학생C)라고 답했지만, 다른 세 명은 멘토링을 통한 선배의 지원(학생E),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선배의 지원(학생B), 기숙사 룸메이트와의 친교(학생A) 등 교내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신입생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대학 내에서의 관계맺음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대학생활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멘토예요.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학생E)

교내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학생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활동에 대해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교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A와 학생C는 학교포털을 통해 외부 활동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학생설문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사회문화 행사에 대해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섯 명 중 세 명은 학교가 동아리, 학생회 등 다양한 캠퍼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거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학과와 대학에 대한 추천의사가 모두 긍정적이었다(Table 2 참조).

학생들 스스로 대학생 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던 이유로 안정적인 경제상황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학생B는 해당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장학금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지속적인 장학금 수혜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사실 이 대학교 온 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데요. 입학할 때 입학 장학금과 성적이 되면 반액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교외 장학금을 하나 더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학비에서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학비부담이 있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학생B)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생은 부모의 뒷받침과 장학금 등으로 학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편으로, 실제 지난 학기 학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설문에서 부모지원이 100%였다는 학생 3명, 장학금이 100%였다는 학생이 2명이었다. 그러나 '장학금의 기본 전제조건이 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 학생C의 지적처럼 경제적 지원의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으로 보인다.

나. 교육과정: 학습과 취업에 대한 강조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활동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학습'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소속 대학의 강점이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Table 2을 보면, 학생들은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이나 튜터링 서비스, 학업시간의 강조와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 강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경력지원 서비스나 사회진출에 대한 강조도 높게 평가하였다. 학생A와 학생E는 '취업센터가 잘되어 있고, 유명한 외부강사를 불러 강의도 많이 해주고, 공지사항도 되게 활발히 올라오는' 등 학습과 취업을 강조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있다고 지적하였다.

Table 2 Perception of College Support

문항		N	평균	표준 편차
만족도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	4	3.50	.577
	학습지원을 위한 튜터링 서비스	4	3.75	.500
	직업 및 경력관련 상담 및 조언 서비스	3	3.67	.577
강조	학교 제공 사회문화 행사	5	3.00	.000
	학업에 많은 시간 투자	5	3.40	.894
	졸업 후 사회진출 지원	5	3.20	.837
	다양한 캠퍼스 활동 참여	5	2.60	1.140
추천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	5	3.00	1.225
	대학에 대한 추천 의사	5	3.75	.500
	학과에 대한 추천 의사	5	3.80	.447

※ 만족도(4점 척도):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 강조(4점 척도): 매우강조, 강조, 조금강조, 전혀강조안함
 ※ 추천(4점 척도): 적극추천, 추천, 추천안함, 절대추천안함

다. 공동체: 학교 안 활동에서 학교 밖 활동으로 확장
 대부분의 대학들은 소학회, 동아리,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며,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봉사활동, 인턴십,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기로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신입생 때 기초교과목이나 실험과목을 함께 듣거나(학생A, 학생D), 교양수업에서 발표를 함께 하거나(학생B),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거나(학생A, 학생D), 동아리나 소학회에서 만나거나(학생B, 학생C, 학생E), 과업 등의 수행을 위해 게시판 등을 통해 만나거나(학생D)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이후 특정 활동이나 과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장되거나 강화되었다.

교수와의 관계는 수업 등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실험실의 조교(학생B)나 튜터 활동(학생E) 등을 통해 친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저는 사실 지식보다 교수님 자체에서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전공교수님은 '아 저 교수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요. 수학 튜터를 하면서 담당 교수님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어요.(학생E)

이들 중 일부는 안정적인 교내 활동들을 바탕으로 교외 봉사 동아리나 멘토링 등에 참여하며 관계를 학교 밖으로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룹 활동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학년에 백 몇 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한 백 명 정도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것도 안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좀 지원하면 좋겠어요... 대학생활을 잘 못 누린다고 해야 되나.(학생A)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선배들이 후배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좋은 활동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제안(학생A)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3. 행동패턴 측면

학생들은 각자의 자아감과 주어진 대학환경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패턴화 된 행동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교과 내 활동, 학교 내 활동, 학교 외 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 내 활동: 성실한 예·복습과 수업참여

수업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주된 교육경험이다. 선정된 학생들의 교과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수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교과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쉽지 않을 때 학생들은 공부 시간을 늘렸으며, 필요하다면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따로 해당 교과목을 잘하는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공부를 하거나(학생A),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학습에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학생E).

예복습은 일단 관심 있는 분야는 제가 혼자 하구요, 좀 어려운 것은 친구들 중에 학점 되게 잘 받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많이 했었어요. 일종의 스터디죠.(학생E)

실제 설문에 따르면 4명이 수업과 관련된 스터디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모든 학생이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수업과제를 위해 동일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중 활동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교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 외의 수업활동에는 빈번하게 참여하는 편이었다.

Table 3 Students' Engagement in Class

학생	교수의 질문에 응답함	궁금한 사항에 질문함	발표에 참여함	토론/토의에 참여함	팀프로젝트에 참여함	노트 필기를 함	나중에 노트를 다시 정리함
A	자주	가끔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B	가끔	가끔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C	가끔	자주	매우자주	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D	자주	가끔	자주	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E	자주	가끔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매우자주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역량을 배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수업이란 게 과제 프로젝트하고 보고서 쓰는 거잖아요. 자기 표현 잘 하고, 쓰기 전엔 각종 정보를 모으고 하는 게 자료 분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 정보 기술의 활용과 종합적 사고력 역량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학생C)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었을 때 교과 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나. 학교 내 활동: 적극적 교내 활동 참여

학생들의 교내 활동 참여 기록은 인터뷰와 교내 비교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속대학의 비교과 데이터베이스는 2012년부터 학생의 활동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하였

기 때문에, 2009학번에서 2012학번 사이인 참여 학생들의 1~2학년 때의 활동은 상당부분 빠져있다. 또한, 특정기간에 소학회나 동아리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참여 활동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제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활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참조). 특히 동아리/소학회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임원으로 활동한 학기도 긴 편이었다.

Table 4 Attendance Activities in College (from 2012)

학생	동아리/소학회		교내대회		봉사		교육			
	참여		임원		참여		기관	해외 연수	학습	취업
	학기	건	학기	건	건	시간				
A	4	3	4	1	1	123	3	-	4	6
B	7	3	6	3	1	57	3	-	3	1
C	6	4	4	1	-	-	-	1	-	3
D	1	1	1	-	-	19	1	-	1	-
E	-	-	-	-	-	372	4	-	1	2

학생마다 주력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학생A, 학생B, 학생C는 소학회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학생E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반면, 진학을 염두에 두었던 학생D는 교과 내 활동, 다시 말해 수업과 같은 교과 내 활동을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학교에 온 외국인들과 매칭해서 버디로 한국 생활을 도와주거나 저희끼리 프로그램 기획해서 캠퍼스 투어 등을 하기도 하고, 친목활동도 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전자공학과다 보니까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동아리가 과거 되게 다양해요. 여기서 생각을 많이 공유하면서 여러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학생E)

학생E는 대학 내의 국제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봉사동아리에서 4학기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장해 나갔다.

대인관계 역량은 1학년 때 비해서는 3학년 때 확실히 더 좋아졌거든요. 1학년 때는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2학년, 3학년 되면서 소학회에서 회장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하고도 교류도 하면서 대인관계역량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저 스스로도 느꼈어요.(학생B)

이러한 활동들은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다. 학교 외 활동: 교내 활동의 보완과 확장

대학생활 중 참여한 학교 외 활동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군대와 같이 비자발적인 활동도 있지만, 어학연수, 봉사활동, 인턴, 아르바이트 등 자발적인 활동들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교내에서의 한정된 활동을 보완해주었다.

대학생활 중에 자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질문에 학생A는 자비로 갔던 어학연수를, 학생C와 학생D는 군대를 꼽았다.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왔는데, 그 때 제일 변하게 된 게기가 외국 친구들 보면 자기 의견 말할 때 되게 부끄럼이 없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틀린 의견 인데도 말하는 데에 부끄럼이 없냐고 물으니깐 어차피 다 모르면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게 그게 더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학생A)

학생A는 그 후 미국 현지에서도 봉사기관을 찾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으며, 국내에 와서도 지역사회의 봉사동아리에서 여러 대학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학생C와 학생D는 군대를 다녀와서 자신의 생활이 크게 변했다고 말하였다. 학생C는 군대에 다녀온 후 보다 계획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으며,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학생D도 군대가 대학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군대 다녀와서 성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원래는 별로 생각 안하고 바로바로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학생D)

이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거나(학생B), 한국과학창의재단의 STEAM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학생D), 기업체에서 인턴, 아르바이트, 학원강사 등을 하거나(학생B, 학생C, 학생E), 국내의 여행을 하거나(학생C, 학생D), 거리에서 악기연주(학생E)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선택지가 한정된 교내 활동을 보완하면서 학교 밖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수한 공대생 다섯 명의 인터뷰, 설문, 학교생활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기초로 개인투자이론에 따라 자아감, 대학환경, 행동패턴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수행한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졸업 평점이 3.5점 이상이고, K-CESA의 여섯 영역 평균이 '우수' 이상이며, 스스로 의도했던 바대로 사회진출을 하는데 성공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우수한 공대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효과적인 자기관리와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성실한 학습태도와 생활태도를 기초로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3학년 정도에 비교적 명확한 진로계획을 세운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처음부터 대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말도 안통하고'라는 학생E의 말처럼 신입생 때 학교 적응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숙사, 동아리, 멘토링 등을 통해 대학 내에서 이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나 소학회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등 대학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신입생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 관계성과 유능감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홍성연, 김인수, 2016).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때 포털 등에 올라오는 공지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가능한 참여'하려고 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이러한 정보에도 익숙하지 않으며 취사선택하기도 어렵다. 학생A는 4학년으로서 '선배가 관심을 가지고 1학년 친구들한테 소학회 단체 카톡방에 링크 걸어주고 해서 (활동에) 무조건 신청하라고 하니까 확실히 참여율이 좋아지긴 한다.'고 말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히 학교에서 공지되는 것이 아니라 선배의 경험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전달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는 신입생 간에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 적응과 정착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동아리, 소학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선배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은 취업이나 진학 등 자신이 기대하는 사회진출과 일부부분 연관되어 있다. 학생A가 자비로 해외연수를 갔던 이유는 입학 시 관심이 있었던 해외 플랜트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C는 발명동아리를 통해 미래 진로를 결정하였으며, 학생D는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복습을 하며 학기 중에는 학업에만 충실하고자 했다. 학생B 역시 실험실

조교나 동아리 회장 등의 역할을 통해 진학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학교는 어떤 교육과정이나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되며, 비교과 활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C는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커리큘럼만 보고 '여기가 반도체로 이어지니까 난 이걸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선배들한테 가거나 교수님께 찾아가도 자기 분야 쪽으로 편중되어 설명하시잖아요. 나중에 배우고 나서 아는 거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특히 융복합 인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어떤 비교과 활동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학교가 선제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경제적인 안정도 지속적인 학생참여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 개인투자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다면 개인의 시간과 비용은 무엇보다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안정적인 장학금이나 부모의 지원이 뒷받침되었고 이것이 대학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의 생활 전반의 문제를 살펴봐야 하며, 특히 경제적인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특정 대학에 다니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인터뷰, 설문, 대학 내 데이터베이스 등 다차원적 자료를 통해 교육성과와 개인의 특성, 구체적 교육경험의 연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7971)

참고문헌

1. 최정윤 외(2016).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IV) : 대학 유형별 교수·학습 역량 평가체제 구축 : 4년제, 전문대학. 한국교육개발원. RR 2016-17.
2. 유기웅 외(2014).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3. 유현숙 외(201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11-13.43.
4. 진미석 외(2013). 2013년도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K-CESA) 구축 사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사업 13-18.
5. 홍성연·김인수(2016). 대학의 지원과 자기결정성 요인이 신입생의 대학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2): 453-479.

6. Astin, A.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7. Astin, A. (1999).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0(5): 518-530.
8. Braskamp, L. A., Trautvetter, L. C., & K. Ward. (2006). *Putting students first: How colleges develop students purposefully*. Bolton, MA: Anker Publishing.
9. Braskamp, L. A. (2009). Applying personal investment theory to better understand student development. *Culture, self, and motivation: Essays in honor of Martin L. Maehr*, 21-38.
10. Maehr, M. L., & Braskamp, L. A. (1986). *The motivation factor: A theory of personal investment*. Lexington Books/DC Heath and Com.
11. Pace, C. R. (1987). *Good things go together*.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enter for the Study of Evaluation.
12. Webber, K. L., Krylow, R. B., & Zhang, Q. (2013). Does involvement really matter? Indicators of college student succes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6): 591-611.



홍성연 (Hong, Seongyeon)

1998년: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2009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014년~현재: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학습자 지원, 학생 역량, 질 관리
E-mail: hsy06@ajou.ac.kr